

# 국립광주과학관, 올해도 프로그램 풍성

### 과학스쿨·밤하늘 관측대장 등 다채 '천체투영관' 새단장 이달 문 열어

국립광주과학관이 2023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는다.

과학관은 먼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18일 올해 첫 '과학스쿨' 프로그램을 연다.

강연은 이날 오후 7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과학기술이 튀어주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과학스쿨은 송은성 GIST 융합기술학제학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송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예술공학,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대한 설명과 과학기술과 음악의 융합 등에 대해 설명한다.

송 교수는 서강대 예술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향기술, 소음 제어 및 음질설계, 미디어 아트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번 과학스쿨 정원은 15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된다. 수강을 원하는 이들은 온라인으로 사전예약해야 한다. 어린이와 성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과학스쿨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 또는 과학스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과학스쿨 강연 영상은 국립광주과학관 사이버과학관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노후화된 시스템을 단장한 국립광주과학관의 천체투영관도 이달부터 문을 연다. 천체투영관은 다양한 별자리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관람객들이 실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돔 형태의 영상관이다.

과학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투영관을 일시 폐쇄하고 7억 6000만 원을 들여 노후화 된 천체투영시스템 최신화 공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K급의 개선된 화질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관람



야간천체관측체험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이달 13일 개장한 천체투영관에서는 'Grandpa&Zoe'와 'Magic Globe' 등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천체관련 애니메이션, 은하수 천체 시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과학관은 "앞으로 특수영상 상영 외에도 돔 형태의 스크린을 활용해 천문·기후현상을 영상으로 체험하는 돔 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 없이 현장 발권 가능하며 인당 2000원의 입장료가 있다.

오는 2월에는 야간천체관측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는다.

먼저 2월 1일에는 '별빛학교' 프로그램이 열린다.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재미있는 천문학 이야기와 겨울철 별자리 탐사, 별빛전문대 천

체망원경을 활용한 천체관측 등을 진행한다.

2일 열리는 '밤 하늘 관측대장'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최대 4인까지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개인 단위 참여는 어렵다. 천체망원경 종류와 원리를 배우고 천체망원경 조립을 경험해볼 수 있으며 직접 촬영한 천체사진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별빛학교와 밤하늘 관측대장은 이달 17일부터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5일에는 정월대보름맞이 '보름달 특별관측행사'가 열린다. 보름달에 대해 배우고 별빛전문대에서 천체망원경으로 보름달과 화성, 성단, 성운을 관측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달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별빛학교의 경우 1만 6000원, 밤하늘관측행사는 2만 원의 체험비가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지난해 우주 발사 186회 역대 최다

### 2019년 이후 줄곧 성장세 ...美 우주기업 스페이스X 주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86차례에 걸친 우주 발사가 이뤄지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0회나 증가한 것으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성장세를 주도했다. 발사 성공률은 6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목표 궤도에 도달하며 97%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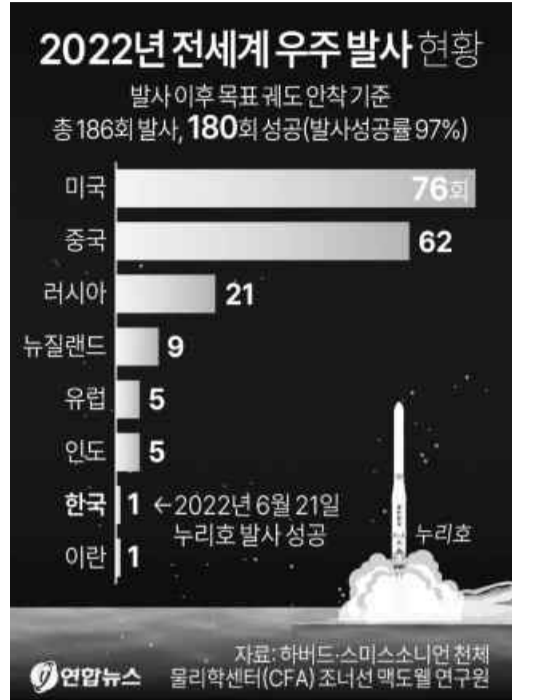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CfA)의 조너선 맥도웰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우주활동' 논문에 따르면 목표 궤도에 도달한 성공적 로켓 발사는 지난 2018년 112회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97회로 떨어진 뒤 2020년 105, 2021년 136회, 지난해 180회 등으로 줄곧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성장세는 우주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심우주탐사용으로 개발한 대형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 첫 발사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총 76회에 달하는 성공적 우주발사 대부분은 스페이스X가 해냈다.

'우주굴기'를 내세우며 맹렬한 기세로 미국을 추격 중인 중국도 우주정거장 모듈 발사 등을 통해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줄곧 이어가며 총 64차례에 걸쳐 우주발사를 기록했다. 이중 두 차례는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지만 나머지는 모두 성공했다.

러시아의 우주 발사는 총 21회에 그쳐 중국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맥도웰은 이와 관련, 네이처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제2우주강국으로서 러시아를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총 180회에 달하는 우주발사 성공 중에는 우리나라의 누리호 발사 이외에 뉴질랜드 9회, 유럽연합 5회, 인도 5회, 이란 1회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 통신3사, 설 연휴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

### 통화·데이터 원활한 이용 위해 특별 소통 대책 추진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설 연휴 기간 통화·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소통 대책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SKT는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인력을 하루 평균 1300여 명 배치해 통신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 시설, 변화가를 중심으로 5G·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으며,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구간, 성묘지 및 공원묘지 등에 있는 통신 인프라 점검(사진)도 마쳤다. 내비게이션 플랫폼 티맵(TMAP) 서비스 관리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KT는 20일부터 25일까지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하루 평균 1200여 명의 네트워크 전문가가 근무하는 가운데 연휴 기간 집중 감시·긴급 복구 임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KT는 해외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로밍 트래픽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국외 통신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정비했다.

LG유플러스도 20~24일 이동통신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운영 체



제에 돌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국 고속도로와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LTE 기지국을 사전 점검해 품질을 측정했다.

/연합뉴스

# AI 활용기업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

### 기술공급기업 100개 이상 육성

정부가 현재 1%대에 불과한 국내 인공지능(AI) 활용 기업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술 공급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계의 데이터와 AI 활용률은 각각 8.4%와 1.6%로, 주력 산업은 여전히 디지털 전환(DX)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투자는 클라우드에 절반가량이 집중되고 AI 투자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기업의 핵심 설비·공정에 AI 솔루션을 적용하는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전반에 AI를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5개 프로젝트에 각 1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규 예산을 확보해 AI 활용 기업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업의 AI 활용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투자와 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견·중소기업 각 500개사에 데이터 처리 플랫폼과 사물인터넷(IoT) 시스템과 같은 AI 활용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의 AI 투자 자금 지원을 위해 2020~2024년 5년간 매년 800억원씩 총 4천억원 규모의 산업 DX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 AI 융합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AI 비(非)전공 대학생·구직자·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입학 교육과정을 개설해 올해는 100명, 내년에는 400명의 인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국민 4명 중 1명

### 차세대 성장동력 '첨단바이오'

국민 4명 중 1명은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첨단바이오'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17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5.4%가 올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기술 분야로 첨단바이오킴 꼽았다. 그다음으로 인공지능(24.9%), 우주·항공·해양(20.4%), 수소(8.9%), 사이버보안(6.4%), 첨단 로봇제조(6.1%)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첨단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한국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합성생물학'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설명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존 생물 시스템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학문이다. 설문 조사 결과는 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STEPI 아웃룩(Outlook) 2023' 보고서에 실렸다.

/연합뉴스

#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